

상생형 일자리 모델 운영

익산시, 농업·식품 연계... 지역경제 대전환 모색

익산시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대전환에 나섰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하립 등이 위치한 장평을 살려 농업과 식품 분야를 결합한 일자리 창출에 도전한다. 시가 추진하는 익산형 일자리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낮은 고용률,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 지역사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농업과 식품기업 간 수평적 상생 관계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익산형 일자리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징이 반영됐으며 농업이 중심이 된 전국 최초의 노·농·사 간 상생 일자리 모델이다. 이번 사업에는 탐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과 (재)푸드통합지원센터 등 지역 농업생산자단체와 하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이 참여한다. 하립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유통플랫폼과 역량강화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들의 동반성장과 공동 이익 창출에 앞장선다. 이어 다양한 참여기업들과 함께 지역 농산물 사용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대학교 산하 LINC+사업단의 사회혁신산학협력센터(센터장 강영숙)가 진행하는 사회적경제 3차 포럼이 지난 20일 진행됐다.

사회적 경제 포럼 성료

군산대 사회혁신산학협력센터, 생태계 소통·협력서 해답을

군산대학교 산하 LINC+사업단의 사회혁신산학협력센터(센터장 강영숙)가 진행하는 사회적경제 3차 포럼이 지난 20일 진행됐다. 이 포럼은 '군산,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다'에서부터 '군산,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다'까지를 큰 주제로 총 4차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다. 포럼은 협동조합협의회 김춘화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군산시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군산시 청년플안태 육 센터장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청년센터와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안태육 센터장은 "사회적경제분야에 있어 청년과 창업의 키워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역단위 비즈니스 시스템과 결합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협동조합협의회 김춘화 회장, 꽃일다청년공예협동조합 박민선 대표, 호원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차준열 교수, 군장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최도원 교수, 한국수산자원공단 김희성 과장, 군산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소 윤영선 교수, 인문산학협력센터 이화숙 교수, 사회혁신산학협력센터 강영숙 센터장, 이진선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공통된 의견으로 "군산시만의 특성을 살린 사회적경제 모델"과 "현재 진행되는 사회적기업 인증사업에서 정량적인 기준보다는 지역사회의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정성적인 평가 부분의 수정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영숙 센터장은 협력과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은 신뢰임을 강조하고, "호남권역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들어서는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당사자들이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주요 업무보고 청취·33건의 부의안건 처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41회 임시회를 지난 13일부터 10일간 개최하고 2021년 마지막 업무보고 청취 및 3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별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 청취에서 내년도 시정방향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는 등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을 면밀히 살폈다. 또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주요현안 사항 및 역점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올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해 보고 받는 등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익산형 일자리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익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군산시 노인일자리를 위한 지원조례안', '군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안',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3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해 눈길을 끌었다. 22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신영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군산은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속해서 예부터 농사를 주 생업으로 해 왔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쌀 수탈의 교두보 역할을 해 그 시절 아픔을 노랫가락으로 풀어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탐동에서 불리오던 옥구물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옥구물노래는 '물무노래', '민경

산타령', '오호타령', '자진산타령', '에이씨호', '위아저씨'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4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고 1984년에는 뿌리가 깊은 나무 팔도소리 음반과 1988년에는 문화방송의 한국민요 대전에 수록되어 알려졌으나 1992년 소리꾼 고관덕 어르신이 작고한 뒤 멈추고 불리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옥구물노래는 조상들의 삶과 예술 그리고 협동의 의미를 보고 듣고 전수해야 하는 문화유산으로 기존에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에 등록되어 있고 음원도 고관덕용의 손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며 대어면의 탐동마을 일대의 사람들에게 옥구물노래의 명맥을 이어질 있도록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공연과 함께 군산의 또 다른 문화행사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 남중자율방범대 김성량 대장, 대통령 표창

익산시 남중자율방범대 김성량 대장이 경찰행정 발전과 공동체 치안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1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김성량 대장은 1987년부터 24년 동안 익산경찰서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김 대장은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방범취약·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한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 야간 여성 인신감시 활동 방범대원 가족 참여 봉사 불우이웃 위문 등을 통해 지역사회

회 안정에 일조했다. 2016년에는 음주 뺑소니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경찰이 추진하는 치안 시책 홍보민·경 합동 캠페인, 합동 순찰·점검 등을 통해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 대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할 일을 했을뿐인데 큰상을 받게 됐다"며 "범죄예방과 봉사 등 자율방범대원으로서 많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량 대장은 전라북도자율방범대연합회 수석부회장과 익산자율방범대연합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경찰청장 감사장과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 소룡동 지사보험, 군산짬뽕라면 100박스 기부

군산시 소룡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코로나19시대 따뜻한 나눔으로 슬기로운 가을나기!' 라는 슬로건으로 군산짬뽕라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OCI (주)군산공장과 노동조합의 후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관내 저소득층 100가구에 군산짬뽕라면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임길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장은 "나눔을 실천한 OCI군산공장과 노동조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쌀쌀해진 날씨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뜻깊은 나눔 행사이다"고 말했다.



한철 OCI(주)군산공장장은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어 영광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확진자 발생 자가격리 주의요망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며 가족 간 추가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5(군산 659번~663번)명이 발생했다. 최근 군산에서 코인노래방과 관련해 10대와 20대에서 주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자가격리 중 확진되거나 가족 간 전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가족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10대 등이 자가격리 중 가족에 전파되며 확진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는 가족과 같이 거주를 하면 안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같이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추가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가족사진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시작

군산시는 일상을 함께 지켜온 가족의 소중함을 상기시키기 위해 추진한 2021 슬기로운 가족생활 사진공모전의 인터넷 투표를 시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가족사진공모전에 접수된 총 56작품 중, 1차 사전심사를 거친 30작품이 최종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인터넷 투표(50%)와 전문가 심사(50%)를 합산해 결정된다. 인터넷 투표는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투표 방법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배너에 게시된 쿼인코드를 통해 투표 사이트에 접속해 가장 유쾌하고 행복한 가족사진 5작품을 골라 투표하면 된다. 최근 트렌드모니터의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8%가 "요즘처럼 일상생활이 불안할 때,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